

우리 K-AI 모델이 현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⑥

- LG AI연구원은 금융 AI에이전트, 업스테이지는 로봇 등 피지컬 AI, SKT는 AI기반 검색, 모티프는 금융, 네이버클라우드는 농업, KT는 사법행정으로

우리나라의 AI모델들이 경쟁력을 갖추며 다양한 현장에 접목·활용되고 있습니다.

10주간 우리 K-AI 모델의 활용사례를 집중 조명합니다 : (5.11) 1차 → (5.18) 2차 → (5.26) 3차 → (6.1) 4차 → (6.8) 5차 → **(6.15) 6차** → (6.22) 7차 → (6.29) 8차 → (7.6) 9차 → (7.13) 10차

① LG AI연구원 × 키움증권 : K-AI로 신뢰성 높은 금융 AI에이전트 구축

LG AI연구원과 키움증권이 금융 특화 AI에이전트 구축에 나섭니다. 양사는 우리 AI모델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신뢰성 높은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BI(EXAONE Business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AI가 종목 투자 점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판단의 근거와 이유까지 설명하는 '설명가능한 AI투자(Explainable AI Investing)'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금융을 넘어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AI에이전트 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속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K-AI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 LG AI연구원 AI Biz. Transformation Unit 이화영 상무 】

"금융 AI 에이전트는 정확도만큼이나 설명 가능성과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엑사원 BI'는 다수의 전문가 에이전트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데이터 분석부터 예측, 보고서 생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구조로, 인간의 판단을 돕는 '실전형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업은 LG의 버티컬 AI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결합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② 업스테이지 × 리얼월드 : K-AI로 피지컬 AI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피지컬 AI 스타트업 리얼월드는 로봇이 실세계를 보고, 느끼고, 사람처럼 손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RLDX-1'이라는 RFM을 공개하며, 우리의 AI 기술 경쟁력을 입증 중입니다.



* RFM(Robot Foundation Model) :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학습된 기반 AI 모델

업스테이지와 리얼월드는 업스테이지가 정부의 지원과 결합해 개발할 독자 AI모델(Solar Open VLM)을 리얼월드의 RFM과 연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로봇이 실제 상황·현상을 이해하고, 고자유도(High Degree of Freedom) 동작을 실행하는 RFM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 기술 요구사항 정의 및 리얼월드의 액션 모듈과 결합한 통합 모델의 성능 검증

우리 K-AI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로봇이 움직이고 일하는 물리적 현장으로 확장되며, 우리나라 피지컬 AI와 로봇 지능화 생태계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SKT × 라이너 : 검색 서비스, K-AI가 더 정확하게 찾아드립니다.

SK텔레콤과 라이너는 AI 기반의 더 정확한 검색·정보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독자 AI모델(A.X K1)에 라이너의 고정밀 RAG(검색증강생성)* 기술 등을 결합함으로써, K-AI의 신뢰성을 한 층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 AI가 응답하기 전 필요한 자료를 찾아 참조하도록 하는 기술

SKT와 라이너는 라이너가 보유한 지식 검색 및 답변 생성 기술을 K-AI의 핵심 지식 활용 축으로 연계하는 등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AI 기술을 중심으로 검색과 지식 탐색의 패러다임을 개선하고, K-AI가 우리 일상의 업무 생산성 등을 높여주는 핵심 열쇠가 되길 기대합니다.



【 라이너 조현석 테크 리드 】

“라이너는 실사용 기반의 데이터 셋과 랭커(Ranker) 모델 기반 평가 시스템, 문장 단위 검증 모듈을 설계하여 한국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AI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맥락에 강한 SK텔레콤의 A.X K1에 라이너의 고정밀 RAG를 결합함으로써, K-AI의 신뢰성과 답변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SK텔레콤 장원범 LLM 엔지니어 】

“SK텔레콤은 라이너와 함께 대형언어모델(LLM)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K-AI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너의 정교한 검색·검증 역량을 바탕으로 대형언어모델이 보다 정확하고 출처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AI 경험을 제공하고, K-AI가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더욱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이너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K-AI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 영역에서 사람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AI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겠습니다.”

④ 모티프 × 딥서치 : 안전한 금융 특화 K-AI 서비스를 주도합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우리 AI모델에 딥서치의 금융 데이터와 구조화된 지식을 결합하여 금융사 내부망 환경에 최적화된 금융 특화 LLM(거대언어 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복잡한 금융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로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업 분석 및 가치평가,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형성 및 최적화, M&A 관련 피인수기업 분석 및 평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무를 AI가 직접 보조할 것입니다. 딥서치와 연계된 50여 개 금융사를 통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금융 특화 AI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금융 산업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5 네이버클라우드 x 대동 : K-AI가 우리 농업 현장의 든든한 일손으로

우리 AI모델로 우리나라의 토양·기후·작물 등 고유 데이터를 학습한 ‘농업 특화 AI에이전트’를 만듭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음성·언어 기술과 대동에이아이랩의 스마트파밍(Smart Farming)·농업 AI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어르신 농민도 부담없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농업 특화 AI 에이전트’를 통해 영농일지 작성, 농장 맞춤형 재배 관리, 농업 컨설팅은 물론 향후 유통과 운영 관리까지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동에이아이랩이 보유한 농업AI·데이터·로보틱스 기술은 네이버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등 기반 풀스택 AI 기술과 연계되어, 농업 현장의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운영·자동화까지 미래 농업의 전 과정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AI 모델이 가장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도 한 층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6 KT x 대법원 :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구축으로 사법서비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KT는 대법원과 함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법률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GPU 기반 AI 인프라와 AI 서비스 포털을 개발하는 등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지원 AI가 법령, 판례, 결정례, 주석서, 실무제요 등 방대한 법률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도록 개발하였으며, 사용자가 답변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판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정보 검색과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KT는 독자적 기술로 처음부터(From Scratch) 개발한 자체 AI 모델인 ‘믿음 2.0’을 재판지원 AI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분야 AI 서비스의 성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국내 AI 기술의 공공 분야 적용 사례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KT 공공고객팀 정시영 팀장 】

"KT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제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는 높은 정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AI가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법원과의 노력이 사법행정의 혁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기성 (044-202-6560)
		담당자	사무관	이현우 (044-202-6566)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